

중국 칭화과기원 인천 송도에 분원 설립

내년 5월 1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2014/11/26 16:44:58

중국 전역에 30여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는 20년 역사의 칭화과기원(TusPark)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첫 해외분원을 설립한다.

26일 중국 베이징 칭화과기원 내 칭화홀딩스에서 한국 아주 IB 인베스트먼트와 칭화홀딩스, 미국 뉴욕주립대학 등이 송도 칭화과기원 분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에는 칭화대 기업그룹의 쉬징홍 회장과 조뇌하 포스코엔지니어링 사장,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칭화과기원은 지난 1998년 칭화대 앞에 구성된 중관촌 사이언스 파크의 일부로 현재 중국 내 유일의 1급 국가 대학과학기술원으로 지정된 산학공동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난창·주하이·시안·량광·쿤산 등 30여개 지역에 분원이 있으며 소후·주니퍼·동팡·쯔광 등 4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칭화과기원 인천 송도 분원 설립은 2단계로 추진된다. 내년 5월 1억달러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대지면적 3만5,000㎡에 총 건축연면적 20만㎡의 복합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후 5억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이 추가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은 오는 2019년, 2단계는 2025년 모두 완료될

계획이다.